

『일상생활의 모험』소론2

- “여행”의 근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

성혜숙*

simple108@hanmail.net

Contents

1. 들어가며
2. 여행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
3. “여행”의 이미지적 의미
4. 도랄의 행위로서의 다비
5. ‘료코’의 비판적 기능
6. <정치적 인간>의 여행
7. 맺음말

Abstract

<政治의季節>と呼ばれた1960年代に發表された大江健三郎の「日常生活の冒険」は1960年代の大江の文学キーワードである<政治的人間>を作品化したものであるといえる。この作品は明治期から1960年代までの人物の生き方と死を通じて、日本の政治運動の問題を提起していると思われる。作品では、政治的運動の問題としてモラルの不在が挙げられているが、モラルが前提とされていない政治運動は実現させる力を持たず、持続されがたいという問題意識が現れている。作品では、<政治的人間>を「旅に出るほう」と定義されているが、ここから「旅」に関する表現がモラルを象徴していると思われる。

ところが、旅に関する表現は「旅」と「旅行」が現れている。この二つの表現の意味について探ってみると、現代の辞典的な意味と明治期の意味が異なることが確認できる。現代の辞典では、二つの言葉は同義語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が、明治期の文章から確認すると、二つの言葉は対立的に使わ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明治期の「旅」には苦行の意味があり、また知識(作品での表現ではモラル)を得るための行動という意味があるが、「旅行」には娯楽的なイメージがあり、行動の内容であるモラルが不在していることを象徴していたといえる。

「日常生活の冒険」では、明治期から1960年までの政治運動が失敗し続けている様相が描かれ、このような政治運動の歴史を通じて、日本での政治運動の難しさを強調していると思われる。作品では、日本での政治運動の失敗の原因の一つとして、運動の主体となる個人のモラルの不在が挙げられている。すなわち、日本での政治運動に対して、形式としての政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문학전공.

治的運動は存在するが、その内容になるモラルが存在せず、ひとつの流行的な現状で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意識が提起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主題は「旅」と「旅行」という二つの言葉を通じて反映されているが、モラルを強調するために、現代辞典的な意味ではなく、明治期の意味を借用していると思われる。モラルの意味を持っている「旅」とモラルの不在を意味する「旅行」という明治期の意味を通じて作品の主題が象徴的に現れているといえる。

そして、「旅」と「旅行」の明治的な意味を積極的に借用することから、大江健三郎の明治期に対する態度が浮かび上がっていると思われる。それは、現代では忘れられているモラルの重要性が求められた時代として明治期が強調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明治期(または近代)への態度は、明治期を軍国主義国家への始発点として考えれ、否定すべき時期として扱われてきた現代以後の態度とは異なる、大江の特徴的な面であると思う。

Key Words : 모랄, 旅行, 旅, 明治(모랄, 여행, 메이지)

1. 들어가며

<정치적 계절>이라 불렀던 1960년대는 안보운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고양되었던 시기로, 문학자들 역시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했다.¹⁾ 이러한 동향 속에서 활동을 시작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1960년을 전후하여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우리들의 시대(われらの時代)』(1959)를 비롯해 「늦게 온 청년(遅れてきた青年)」(1960), 「성적 인간(性的人間)」(1963), 「일상생활의 모험(日常生活の冒険)」(1963·2~1964·2)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의 작품은 발표 당시 호평과 악평을 동시에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전반적으로는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정치적 계절>이라 불렀던 시기의 일본 사회와 일본인을 “정체된 일본 사회”와 “정치적 인간이 되지 못한 성적 인간”²⁾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의 내용은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³⁾. 이러한

1) 문단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치와 문학 논쟁이 일어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에토 준(江藤淳)의 『작가는 행동한다(作者は行動する)』(1959), 다니가와 간(谷川雁)의 『민주주의의 신화(民主主義の神話)』(1960),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의 『정치와 문학』이론의 파산(『政治と文学』理論の破産)』(1963)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磯田光一(1974) 「大江健三郎における『政治』と『性』」、『朝磯の手紙』、小沢書店、p.12.

외부평가에 동조하듯이 작가 스스로의 평가 또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의 모험」을 비롯한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해서 오에 스스로는 “소설의 틀을 갖추고 있지 않다”⁴⁾라고 말했으며, 2002년 좌담회에서는 이 시기의 작가로서의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⁵⁾. 1994년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된 『오에 겐자부로 전집』에는 「일상생활의 모험」을 포함한 몇몇 작품이 작가 스스로에 의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해 가와니시 마사아키(川西正明)는 이 시기의 작품이 “그의 인생의 주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오에 겐자부로 자신에 의해 판정되었다”⁶⁾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자타의 평가 속에서 「일상생활의 모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모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와타나베 히로시(渡辺広士)의 “영웅주의가 불가능한 시대의 청년을 그리고 있다”⁷⁾는 평처럼 단편적인 언급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960년대의 오에 문학 키워드 중 하나인 <정치적 인간>을 중심인물로 당시 일본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인간>은 <성적 인간>과 함께 1960년대의 오에의 문학 키워드로, 1963년 발표된 「성적인간」이 <성적인간>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면, 1963년 2월부터 1964년 2월에 걸쳐 연재된 「일상생활의 모험」은 <정치적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메이지 초기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정치적 인간>을 통해서 일본의 민권운동의 추이를 조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찰하고 있는 작품으로⁸⁾

3) 一条孝夫(1985) 『大江健三郎の世界』、日本電気、p.27

4) 大江健三郎(1998) 『私という小説家の作り方』、新潮社、p.140

5) 小森陽一・井上ひさし(2004) 『昭和文学史』第六卷、集英社、p.67

6) 川西正明(2001) 『昭和文学史』下卷、講談社、p.229

7) 渡辺広士(1987) 「大江健三郎・人と作品」, 『昭和文学全集』第16卷、小学館、p.1082

8) 이에 대해서는 줄고 「『일상생활의 모험』소론 I-1960년대 사회참여 운동과 관련하여」(일본 학보 제74집 2권, 2008·2)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에서는 이 시대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개개인들은 정치의식의 토대가 되는 스스로의 사고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의 유행처럼 언설이나 행동으로만 그 의식을 흉내 낸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정치 운동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연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품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치의 계절>이라 불렀던 당시 시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운동의 기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메이지 시대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에는 「우리들의 성의 세계」에서 <성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의 정의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에는 <정치적 인간>이란 “타자와 대립 항쟁하고, 타자를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타자를 자기의 조직 속으로 해소시켜, 그 타자가 타자임을 스스로 포기시킨다”⁹⁾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는 <정치적 인간>이란 “여행을 떠나는 쪽”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작품 내에서의 <정치적 인간>의 정의와, 1960년대의 문학 키워드로서의 <정치적 인간>의 정의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내에서의 <정치적 인간>의 정의는 오에의 정의를 따르기 이전에 그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 내에서는 <정치적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는 쪽”이라는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행”이 <정치적 인간>의 핵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상생활의 모험」¹⁰⁾에서 비유로서 사용되고 있는 “여행”의 의미를 통해 작품 내에서 정의되고 있는 <정치적 인간>의 정의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2. 여행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

작품은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사이키 사이키치(齊木犀吉)와 그 모험에 동참했던 “나”의 삶을 통해 당시대의 문제를 비판하며 발언하거나 행동하기 이전에 주체적으로 사유¹¹⁾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1960년대의 정

스스로 사고할 것과 사회적 차원에서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 초기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환기함으로써 형상화되고 있다.

9) 大江健三郎(1959·12) 「われらの性の世界」, 『群像』, p.156

10) 大江健三郎(1994) 「日常生活の冒険」 『大江健三郎全作品 5』, 新潮社 이하 텍스트라 함.

11) 작품에서는 이 주체적 사고에 대해 모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가치관, 주관, 철학적 태도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치운동의 문제 중 하나로 “모랄”의 부족을 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작품에서는 정치운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모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작품에서는 이항 대립적 대비를 통해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하는데, 이 이항대립은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이다. <정치적 인간>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은 당대의 사이키 사이키치와 근대의 “나”의 백조부와 아버지이며, “나”의 조부의 경우는 <반정치적 인간>을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항 대립의 경계에 서 있던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을 용어 자체로만 이해하자면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가 이에 반대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의 조부와 백조부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이키 사이키치나 조부는 철학적 태도(모랄의 강조)를 매개로 해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은 단순히 정치적 행동을 여부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에 대한 <반정치적 인간>의 비판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조부가 말하는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이 대립하는 측면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작품에서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을 “여행을 떠나는 자(旅を出るほうの血)”와 “집 안에서 길을 바라보는 자(家にのこって道を眺めているほうの血)”¹²⁾라는 비유를 통해서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여행”의 의미가 <정치적 인간>과 의미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정치적 인간>들은 모두 여행을 떠났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여행에 대해서는 주로 “모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화자 “나”의 백조부는 아메리카로 떠나 행방불명이 되고, “나”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자치운동에 참여했으나 일본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자살했으며, 사이키치는 카이로를 향해서 배를 탄 것을 시작해서 수많은 여행 끝에 결국 아프리카에서 죽

12) 텍스트, p.172

었다. 근대의 <정치적 인간>들은 모두 여행 끝에 실종되거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무모함이 강조되어 “모험”이라고 기술되었다¹³⁾. “여행”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조부의 <정치적 인간>의 정의에서 등장하며, 조부의 여행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한다. 또한 1960년대의 <정치적 인간> 사이키 사이키치의 여행에 대해서는 “모험”과 “여행”이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의 대립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정치적 인간>과 공명하고 있는 사이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인간>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제기하고 있는 조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젊은 야망가인 백조부는 단신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의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그 광대한 나라의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중략) 그래서 나의 조부는 형의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본 끝에 자신이 돌연변이적 농민 타입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온 일본을 방랑하면서 인생의 진실을 찾아 헤맸다.¹⁴⁾

조부는 백조부의 정치적 모험에 참가하는 대신 인생의 진실을 찾아 일본 전역을 여행한 후에 한 마을에 정착하여 일가를 이룬 인물로, <정치적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일생의 모랄로 삼은 인물이다. 위의 인용에서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일본 전역을 여행했다는 기술이다. 이 여행에 대해서 “방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인용에서는 이 여행에 대해서 “구식 여행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자기 간수를 그만둔 할아버지는 그대로 큰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략)”

13) 나의 가계에는 이따금 정치광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모두 불만족스러운 대모험 뒤에 대개가 서른도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ぼくの家系には時どき政治狂があらわれ、そしてみんな結局は不満足な大冒険のあとたいてい三十歳にみたないで死んでしまった。) (텍스트 p.135)

14) そして若い野望家の大伯父は、単身アメリカ大陸へわたり、カリフォルニアの葡萄畑で働いていたという風のたよりをのこして、あの広大な国のどこかへ永遠に消えさってしまった。(中略)そこで、ぼくの祖父は、その兄の冒険について考えてみたあげく、自分が突然変異的に農民タイプとして生まれてき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にも思っていたって、この日本中を放浪しながら人生の真実を求めた。(텍스트, p.135)

“틀림없이 내 연배의 사람이구나.”하고 조부는 자못 우쭐해져서 말했다. (중략)

“할아버지는 출발하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긴 했으나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냐,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을 게다. 다만 시대가 변해 있었어. 합승 자동차나 열차, 거기다가 여객기까지 생겨버려서 구식여행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랐어. 내 연배의 사람이 어딘가 먼 곳으로 여행할 때는 다만 집에서 나와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거든. (중략) 내 연배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시작했던 것이지. 걷지 않는 자는 매일 자기 집 앞 큰 길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참고 있었어. 그런 식이었지, 메이지 시대는!”¹⁵⁾

위의 인용에서 “구식 여행자”라는 표현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여행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식여행자”가 메이지 시대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주의 를 끄는 대목은 조부의 여행이 개인의 한정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즉 메이지 시대적 특징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 연배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시작했던 것이지. 걷지 않는 자는 매일 자기 집 앞 큰 길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참고 있었어.”라는 조부의 말은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의 비유적 정의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인용에서는 <정치적 인간>의 비유적 정의에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녀석은 벌써 세권이나 책을 썼지만, 소설가라는 직업이, 우리 가계의, 여행

15) 「そして突然、祖父は看守をやめると、そのまま街道を歩きだしたんです。(中略)」

「それは確かに、わしの年代の者にちがいない。」とそふは得意になっていった。(中略)

「ぼくの祖父は、出発したいという熱情にかられたんですが、どこへ行って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ですよ。」

「いや、どこへ行きたいかはわかっていたにちがいない、ただ、時代が変わっていたんだな、乗合自動車や汽車、それに旅客飛行機までできてしまって、昔風の旅行者には勝手がちがったんだ。わしの年代の者が、どこか遠方の国に出発するときには、ただ家を出て、歩きだせばよかったよ。(中略)わしの年代の者は、ある日突然、歩きだしたものだ。歩きださないものは、毎日、自分の家のまえの街道をみながらじっと忍耐していたんだ。そういう風だったよ、明治時代は!」(テキスト, p.145)

(旅)을 떠나는 쪽의 피인지, 집에 남아서 길을 바라보는 쪽의 피인지, 어느 쪽의 피로 인한 직업인지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번엔 그걸 알게 되겠지.”¹⁶⁾

두 인용문에서 여행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조부 자신의 여행을 포함하여 메이지 시대의 여행을 지칭하는 “구식 여행자”의 여행(료코, 旅行)과 <정치적 인간>을 비유적으로 정의한 “여행을 떠나는 자(旅を出るほうの血)”에서의 “여행(다비, 旅)”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같은 여행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구식 여행자”에서의 “여행(旅行, 료코)”과 “다비(旅)”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로 모두 여행으로 번역되는 두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일본어음 자체로 표기하여 “구식 여행자”의 여행을 ‘료코(旅行)’, “여행을 떠나는 자”의 여행을 ‘다비(旅)’로 표기하겠다.

3. “여행”의 메이지적 의미

먼저 ‘다비’와 ‘료코’의 사전적 정의¹⁷⁾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료코’의 사전적 정의는 ‘다비를 떠나는 것(旅を出ること). 시찰, 관광, 보양, 또는 신사참배

16) 「あれはもう三冊も本を書いたが、小説家の職業が、うちの家系の、旅に出るほうの血か、家
にのこって道を眺めているほうの血か、どちらの血のための職業かわかっていないようだった、
こんどそれがわかるだろう」(텍스트, p.172)

17) 이 정의는 『일본국어대사전(日本国語大事典)』 第二版(小学館, 1972)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어대사전(日本語大事典)』(講談社, 1989)과 『고어대사전(古語大事典)』(小学館, 1983)을 살펴보았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그 중에서 『일본국어대사전』의 경우 특히 다비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표로 채택했다. 그 내용은 대표적인 뜻, 방언에서의 뜻, 어원설, 대표적 출전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전체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그 대표적인 뜻에만 중점을 두고자 했으며, 료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를 중시했다.

참고로 다른 사전에서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대사전』에서 다비는 “집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 도중, 여행(료코). trip. travel: tour”라고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대사전』은 다비와 료코를 동의어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고어대사전』의 경우는 료코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비의 항목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일본국어대사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뜻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용례로 『만요슈(万葉集)』와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그리고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용례가 소개되어 있다.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다비'는 '1) 살던 토지를 떠나서, 일시적으로 다른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 또는 주거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2) 자택 이외의 곳에 임시로 있는 일. 외부의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말한다. 3)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외부의 지역. 타향. 4) 제례에서, 신여(神輿)가 본궁에서 도착해서 잠시 머무는 장소. 5) 다비모노(旅物)의 약칭'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두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를 비교하면, '다비'가 광의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료코'가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는 명백하지 않다. '료코'의 설명으로 '다비를 떠나는 것(旅を出ること)'이라고 직접 설명되어,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문장을 살펴보면, 당시의 '다비'와 '료코'가 사전상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자가 말하기를 말 등, 가마 안, 또는 지팡이에 도움을 받아서 여행(旅)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으로, 도중에 여행자를 속이는 도둑이나 여관의 벼룩, 이에 가슴 저리게 여수를 느끼면서 불안하게 여행하던 옛날과, 기차, 기선, 인력거, 마차를 타고 자면서 여행(旅行)할 수 있는 지금, 그 고급의 모습을 비교하니¹⁸⁾

오하시 마타타로 편 『여행안내』(1896)

여행(旅)을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가려고 해도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묵으려 해도 여점도 없고, 들판 끝에서 풀을 베개로 삼아 잤다는 이야기는 벌써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이야 기차가 어디든지 가고 전기 철도도 있고, 마차도 있고, 인력거도 있다. (중략) 지금 세상에는 여행(旅行)보다 편한 것은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여행을 바라며, 편안한 여행을 바라지 않는다.¹⁹⁾

18) 編者白す、馬の背、輿の中、或るは金剛杖に助けられて、旅は憂いものつらいものと、道中の胡麻の灰、旅籠屋の蚤虱に、しみしみ旅愁を感じながら、心細くも旅行せし昔と、汽車、汽船、人車、馬車、眠りながら旅行のできる今と、其の古今の様を比較もし(하략) (大橋又太郎編(1896) 『旅行案内』, 『日用百科全書 第十四編』, p.1)

19) 旅をうきものと思ひしは、行くに車なく、宿る旅店なく、野末に行きくれて、草を枕とせし昔の事也。今や汽車や到る処に通じ、電気鉄道もあれば、馬車もあり、人力車もあり。(中略)今の世豈旅行ほど気楽なものあらむや。然れども、われ青年諸子にはむしろ苦痛なる旅行を望

오마치 게이게츠의 『여행』(1902)

위 인용문에서 여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 『일상생활의 모험』에서 조부가 “구식 여행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명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메이지 시대가 들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달과 더불어 여행의 형태가 변화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이전의 여행은 고행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비’와 ‘료코’의 의미의 차이를 연구한 사카시타 게이하치(阪下圭八)는 ‘다비’와 ‘료코’에 대하여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²⁰⁾ ‘다비’는 만엽시대부터 일상어로 사용되었고, ‘료코’는 지배계급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다가 메이지 시대에 일상어가 되었다. 이러한 두 단어의 역사적 차이는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발생시켰는데, ‘다비’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생활의 자원을 얻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료코’는 오로지 소비행위로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²¹⁾

이를 정리하면, 메이지 이전의 여행에 대해서는 ‘다비’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메이지 시대 교통수단 등이 발달하면서 여행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고행의 의미가 강한 ‘다비’라는 표현을 대신하는 새로운 표현이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료코’라는 표현이 새롭게 일상어로 사용되기 시작되어, 메이지 시대 이전의 여행에 대해서는 ‘다비’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메이지 이후의 여행에 대해서는 ‘료코’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료코’가 일상어가 되면서 여행 전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비 대신 ‘료코’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이지 시대의 ‘료코’와 ‘다비’의 의미는 현대의 사전적 의미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일상생활의 모험』에서의 료코와 다비는 현대적 의미에서

む、気楽な旅行を望まず。(大町桂月編(1926)『旅行』, 『大町桂月全集第十一巻』、博文館、p.113)
20) 阪下圭八(1982) 『『旅』という言葉』, 『月刊百科』 231号、p.8

21)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비단 ‘료코’만이 아니라, 메이지 초기 ‘료코’의 유의어인 ‘관광’과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의 경우 ‘료코’와 함께 ‘관광’이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제도를 시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메이지 초기에 ‘료코’나 ‘관광’이 견문을 넓힌다는 학구적 목적성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다이쇼기가 되면, ‘관광’ 역시 ‘여행’과 마찬가지로 놀이로서의 오락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라기보다는 메이지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부가 사용하고 있는 “구식 여행자”는 메이지 이전의 여행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비’라는 표현은 <정치적 인간>을 정의한 표현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외에는 주로 ‘료코’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료코’는 ‘다비’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 ‘료코’라는 표현이 보다 일상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것에 반해, 현대 사전상에서 ‘다비’의 의미가 ‘료코’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렇다면 1960년대에 발표된 이 작품에서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메이지적 의미를 사용한 까닭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메이지 시대의 ‘다비’와 ‘료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4. 모랄의 행위로서의 다비

앞서 메이지 시대에 메이지 이전의 여행을 의미하는 ‘다비’가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인용은 야나기타 구니오의 「학생과 여행도」(1949) 중 일부이다.

우리들이 먼 지역들의 사물에 마음이 끌려, 여행(旅)을 더 없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숨겨진 유인이 이러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일 년에 한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또한 확실히 여행(旅行)의 기분을 들게 한다. 이리하여 여행(旅行)에 만약 품질에 따른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인과 같이 이득의 목적이 아니라, (중략) 다만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알고자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독서에 가까운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문화인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나와 같은 여행을 좋아하는 자도, 결코 타고났거나 특기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느 한 시대의 기호에 의해 길러진 것이, 우연히 시대를 벗어나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종류의 가난하고 또한 겸손한, 단지 지식을 위한

여행(旅行)이라 할 만한 것은, 전대에도 그 예가 적었지만, 후세에도 다시 번성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²²⁾

야나기타 구니오의 「학생과 여행도」(1949)

위의 인용문은 1949년도에 발표된 글로, 이 시기에 여행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비’와 ‘료코’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료코(여행)’는 ‘다비’와 ‘료코’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당시 ‘료코’가 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다비’와 ‘료코’를 포괄하는 상위어로서 ‘료코’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료코’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가 ‘다비’인가 ‘료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나기타는 여행을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식을 위한 여행을 “문화인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을 위한 여행은 이전의 여행에서 적기는 하지만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반해 이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을 위한 여행은 메이지 이전의 것으로 ‘다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료코’와 ‘다비’라는 단어로 말하자면, ‘다비’에는 지적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료코’에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1949년도에 발표된 이 글에서, 지식으로서의 여행을 추구하는 태도가 당시의 태도라기보다는 당시와는 비교되는 옛 태도라고 야나기타는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식의 의미로서의 ‘다비’가 메이지적 의미, 즉 근대 초기적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야나기타 구니오가 근대 이전의 여행을 지적 활동으로 언급한 것

22) “私たちが遠い国々の物事に心を引かれ、旅をこの上も無く好ましいものに思いはじめたのも、隠れた誘因が欺ういふところに在つたと思う。

學生が一年に一度、故郷に帰って行くといふことも、又たしかに旅行の機運を促している。さうして旅行にもし品等の差が有るものとすれば、是は商人の如く利得の目途もなく、(中略)たゞ今までに知らなかつたものを知らうといふだけの、言はば読書に近い動機に発しているのだから、是は最も文化人にふさわしい行動であつたといふことができるだらう。(中略)私なんかの旅行ずきも、決して天分とか特技とかいふべきもので無く、単にある一つの時代の好みに養はれたものが、時代はづれに取り残されたに過ぎない。

今になつて考えて見ると欺ういふ種類の貧しく又謙遜な、だゞ知識の爲の旅行といふべきものは、前代にも例が乏しく、是から後の世にも再び興るといふことは甚だ望み難い。”

(柳田国男(1955)「学生と旅行道」、『柳田国男集』、筑摩書房、p.400)

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떠돌이라는 우리들의 유서 깊은 이동 학교는 쇠락하고, 부랑인은 경찰의 단속이 필요한 악한의 별명처럼 되었다. 그래서 여행의 가치는 싸구려가 되어 버린 것이다”²³⁾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근대를 기점으로 하여 여행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전의 여행인 ‘다비’를 지적 활동으로 보는 반면, 근대 이후의 여행을 가치 절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비’가 지적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나기타의 경우, ‘다비’를 독서에 준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독서와 비교할 때 독서가 간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것에 반하여 ‘다비’의 특징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모험』에서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이러한 ‘다비’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의 인간들은 여러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20세기의 역사 동안 모두 다 생각했다고 여기며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는 하지 않네. 그 대신 백과사전 한권을 서재에 장식해 놓고 안심하고 있지 나는 그것이 싫어. 본질적인 명제는 전부 나의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나만의 대답을 준비해 두려고 하네. (하략)”²⁴⁾

위의 인용문에서는 현대(1960년대)의 인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백과사전”으로 상징되는 현대는 사고의 대상 일반에 대한 고찰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믿고 있으나 그러한 생각은 폴랑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1960년대의 문제점으로 주체적 사고의 부재(작품의 표현을 빌리면 모랄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작품은 1960년대의 활발히 일어나고 있던 정치 운동의 움직임, 정치의식이 고양된 사회 분위

23) 柳田国男(1963) 『明治大正史 世相篇』, 『定本 柳田国男集』 第24卷、筑摩書房、p.269

24) 『もう現代の人間どもは、いろんな基本的な命題については二十世紀の歴史のあいだにすべて考えつくされたかと思っていて、自分で考えてみようとはしないんだ。そのかわりに百科事典をひとそろい書齋にかざっておいて安心している。おれはそれが厭なんだ、本質的なことはみな、いちどおれの頭でかんがえて、おれ専属の答えを用意しておこうとおもうんだ。(略)』(テキスト, p.142)

기에 대해서, 운동의 토대가 되어야 할 모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인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행(다비)을 떠나는 쪽”이라는 비유를 통한 정의는 <정치적 인간>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실체함을 통한 스스로의 모랄(주체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료코’의 비판적 기능

메이지 시대에 ‘료코’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하나는 메이지 이후의 여행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다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여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포괄적 의미의 ‘료코’는 모랄의 의미를 내포하는 ‘다비’와 편리함을 의미하는 ‘료코’를 모두 지칭하여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메이지 이후의 여행만을 의미할 경우 ‘료코’는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일본에서 이동의 제한이 철폐되고, 철도와 선박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고 철도 보급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²⁵⁾ 새로운 교통체계를 이용해서 서민층까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놀이로서의 여행이 일반화되었는데, 이 때 상용된 ‘료코’는 놀이적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야나기타 구니오의 『명치대정사 세상편(明治大正史 世相篇)』(朝日新聞社, 1931)에서 여행에 놀이의 성격이 강조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종교적 목적을 갖은 순례가 “근대에는 수십 군데의 영험한 명소를 연결하여 일부러 그 참배 목적을 산만하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참배의 의의는 오히려 여정에 있었다. 가는 김에 교토 구경, 나라 등지의 야마토 순례, 고토히라, 미야지

25) 메이지 시대는 철도 향만 등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변화요인이 되었다. 도쿄에서 요코하마에 이르는 29km의 철도를 부설하는 것에서 시작해 1877년까지는 100km의 철도가 놓여졌다. 숙역과 스케고(助郷)에 의해 유지되던 복마를 이용한 막부의 오랜 내륙 교통체계는 1871년에 폐지되고, 민간에 위임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과 말의 왕래를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던 산간도로 전체가 점차 의미를 상실했다. (마리우스 B. 쟈슨(2006) 『현대 일본을 찾아서 2』, 이산, p.601)

마도 들러 왔다는 식의 여행이 신앙심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었다”²⁶⁾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종교적 순례가 놀이로 성격이 변화했으며, 신앙심이라는 것으로 겉포장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행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신앙심 등 정신적 가치는 부재하고 있는 현상이 메이지 이후의 ‘료코’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모험』에서는 1960년대의 왕성한 정치적 움직임을 그리고 있으나, 그 운동들이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실패하고 있는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대학생이었던 “나”와 고등학생이었던 사이키치는 카이로 의 용군 집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카이로로 출발하기 직전 이 집회는 분명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산되어버린다. 이에 격노한 사이키치는 단독으로 카이로로 출발한다.

출발을 계획했지만 끝내 출발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특공대 세대의 형들로부터 항상 빈정거림을 받고 결국에 가서는 매우 자학적인 태도를 그 생활 습관으로 하여 자라났으므로, 처량한 돈키호테, 사이키 사이키치의 환영에 비겁한 자기들의 죄가 규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차츰 떠나 버린 열여덟의 모험가의 소문을 입 밖에 내어 공통의 화제로 삼지 않게 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출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의 허위성, 출발하겠다는 의사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꼴이었다.²⁷⁾

이 에피소드에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의용군 집회를 만들 만큼 당시의 정치적 의식이 고양되어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편, 이 집회가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 처음부터 의용군으로서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형식으로서

26) 柳田国男(1963) 『明治大正史：世相編』, 『定本柳田国男』、筑摩書房、p.261

27) 出発をもくろみ、結局は出発しなかった、ぼくらは、特攻隊の世代の兄たちからつねにあてこすられ、結局、きわめて自虐的な態度を、その生活習慣として育てていたので、哀れなドン・キホーテ、齊木犀吉の幻影に自分たちの卑怯さの罪を糾弾されている気分になったのだった。そこでしだいにみんなはあの出発してしまった十九歳の冒険家の噂を口にして共通の話題にすることがなくなった。ひとりでも本当に出発した男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とに残ったすべての者たちの、出発への意志のインチキ性があかしたてられる、といった具合だったのだ。(テキスト p.148)

의 정치 운동은 존재했지만, 실제 내용이 되는 의사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를 “비밀결사원”이라고 밝힌 “나”의 협박자는 “나”의 소설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느끼고 “나”를 협박하게 된다. 그는 “나”를 만나서 이야기해본 후 “나”를 죽일지 결정하겠다고 통보한다. 그 소년은 소설을 사회적 발언으로 간주하고 그 사회적 발언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대중화해 있는 사회적 참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협박자는 “비밀 결사원”의 형태를 빌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비밀결사원”도 아니고, 사람을 “죽일” 용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만을 하고 있는 비겁함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 협박자는 다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만 유행처럼 “정치적 인간”을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주체적 사고 없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정치 운동의 형식만을 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근대적 ‘료코’의 비판적 의미를 차용하여 상징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6. <정치적 인간>의 여행

그렇다면 여기에서 ‘료코’와 ‘다비’의 대비를 통해서 백조부와 조부의 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백조부는 새로운 일본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자 조부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조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백조부는 홀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조부는 온 일본을 방랑했다. 이 에피소드에는 두 개의 여행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부의 여행은 ‘다비’이다. 그는 “온 일본을 방랑하면서 인생의 진실을 찾아 헤맸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을 위해서 여행했다는 의미에서 ‘다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백조부의 여행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백조부가 미국으로 떠나고자 했던 까닭은 결코 놀이의 수단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는 메이지 초기의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일본을 기대했

지만 이것이 좌절되자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미국을 상정하고 떠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여행은 ‘료코’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작정 끊임없이 표면적인 새로움만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본을, 다음에는 새로운 공간을 갈망했고, 그러한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장소를 꿈꾸었다. 그런데 백조부가 그 새로움이라는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품에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 단계에서 역대의 <정치적 인간>의 여행은, 통칭으로서의 ‘료코’, 즉 가치중립적, 혹은 구체적 의미 미확정의 ‘료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의 <정치적 인간>의 여행의 의미를 보다 한정하고자 할 경우, ‘다비’를 떠났던 조부의 백조부에 대한 태도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부는 ‘다비’ 끝에 한 마을에 정착한 이후 스스로를 <반정치적 인간>이라 규정한 후 <정치적 인간>을 정치광이자 모험가, 팔불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부는 또 다른 <정치적 인간>인 사이키치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는 사이키치의 철학자적 면모와 조부의 여행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유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부가 백조부를 비롯한 역대의 <정치적 인간>을 정치광이라 부르며 조소했던 까닭은 이 사유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조부라는 <반정치적 인간>이 <정치적 인간>과 대립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그 행동의 기반으로 스스로 사유하는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유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백조부의 여행은 “료코적”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료코’와 ‘다비’의 대립구도와 관련해서 <정치적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의 대립구도를 살펴보았다. 여행을 ‘료코’와 ‘다비’의 의미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의 대립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사이키치라는 <정치적 인간>과 조부라는 <반정치적 인간>의 깊은 유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다비’와 ‘료코’의 의미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반정치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의 대립각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다 명확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행동이나 정치적 발언에 앞서서 그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할 것과 이러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작품은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의 모험』을 비롯해서 같은 시기에 오에는 사회 비판적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중에서 이치조 다카오의 연구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골적인 성묘사와 함께 “현실생활과의 격차”²⁸⁾가 지적되었다. 이치조는 당시 고양된 정치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물상을 <정치적 인간>이 될 수 없는 <성적 인간>²⁹⁾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생활과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주로 <정치적 인간>의 패배과정과 죽음이 그려지고 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반정치적 인간>이나 <성적인간>들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을 <반정치적 인간>이나 <성적 인간>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순응주의자라로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이치조의 평가는 납득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반정치적 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토대로, 작품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정치참여이기 이전에 전제로 사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메이지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

28) 一条孝夫(1985), 『大江健三郎の世界』、日本電気、p.27

29) <성적 인간>은 <정치적 인간>의 이항대립항으로, 1960년 전후의 작품들에서 키워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성적 인간>은 <정치적 인간>의 대립어인 <반정치적 인간>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반정치적 인간>과 <성적인간>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오에겐자부로는 <정치적 인간>을 타자와 대립 투쟁하는 자로, <성적 인간>은 타자와의 대립을 회피하고 동화해가는 자로 정의했다. 오에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적 인간>과 <성적 인간>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정치의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인간>의 자체의 내용만을 판단할 때, <정치적 인간>과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치조 다카오의 경우는 <성적 인간>을 자폐적 인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폐적이라는 말을 타인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이해할 경우 오에의 정의와 대립된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치적 인간>과 <반정치적 인간>의 경우 역시 표면적인 대립, 정치적으로 행동하는가와 아닌가가 아니라 사유하는가 아닌가로 그 대립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대립구조는 작품분석을 통해서 명확해진다. <정치적 인간>과 <성적 인간>의 경우 역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까지의 <정치적 인간>의 패배요인을 분석하여, 이전에는 발언이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할 자신의 철학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생각할 수 있다. 작품은 1960년대 당시 쏟아져 나오는 정치적 발언들의 내실없음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정치적 발언들의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결국 거짓말로 끝나게 되는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 작품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일상생활의 모험』에서는 1960년대의 정치 운동의 시발점으로 메이지 초기의 민권운동을 들고 있으며, 메이지 시기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정치운동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은 패전 이후 새롭게 시작된 현대가 그 이전의 역사와는 분리된 독립적 시대로서 구축하려고 한 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인 ‘다비’와 ‘료쿄’의 의미를 현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근대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메이지 시대로부터 1960년대의 정치 운동의 문제점으로 형식으로서의 정치 운동에 앞서 그 기초가 되는 주체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모랄의 유무를 각각 상징할 수 있는 근대적 의미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초기의 단어의 의미를 차용함으로써, 당시의 긍정적 면모를 발굴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 메이지 시대는 결국 군국주의로 발전했던 초기 단계로 부정적 시각이 강하지만, 그 시대가 품고 있었던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다비’와 ‘료쿄’라는 두 가지 대립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상징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작품에서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메이지 시대로부터 1960년대까지 꾸준하게 존재해왔던 일본의 정치 운동의 역사를 한 가계의 <정치적 인간>들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존재를 통해서, 군국주의 국가로서 토대가 된 메이지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던 시대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메이지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모랄을 강조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다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마리우스 B. 켄슨(2006) 『현대 일본을 찾아서 2』, 이산, p.601
一条孝夫(1985) 『大江健三郎の世界』, 日本電気, p.27
大江健三郎(1959) 「われらの性の世界」, 『群像』, 1959・12, p.156
_____ (1994) 「日常生活の冒険」 『大江健三郎全作品 5』, 新潮社(텍스트)
_____ (1998) 『私という小説家の作り方』, 新潮社, p.140
大町桂月編(1926) 「旅行」, 『大町桂月全集第十一巻』, 博文館, p.113
大橋又太郎編(1896) 「旅行案内」, 『日用百科全書 第十四編』, p.1
川西正明(2001) 『昭和文学史』下巻, 講談社, p.229
小森陽一・井上ひさし(2004) 『昭和文学史』第六巻, 集英社, p.67
阪下圭八(1982) 「『旅』という言葉」, 『月刊百科』 231号, p.8
柳田国男(1963) 「明治大正史：世相編」, 『定本柳田国男』, 筑摩書房, p.261、p.269
_____ (1955) 「学生と旅行道」, 『柳田国男集』, 筑摩書房, p.400
渡辺広士(1987) 「大江健三郎・人と作品」, 『昭和文学全集』 第16巻, 小学館, p.1082

- ❖ 투고일 : 2009. 6. 30
- ❖ 심사일 : 2009. 7. 16
- ❖ 심사완료일 : 2009. 7. 28